

대형서점이 통째로 안방에 옮겨진다

'홈 쇼핑' 시대의 도서구입

梁文吉

소설가·교보문고 홍보부장

우선 퍼스널 컴퓨터(PC) 한 대를 구입하고 전용회선용 모뎀을 설치한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PC 한 대 값이 대략 1백70만원선이고, 모뎀 설치비용은 10만원선. 물론, 날이 갈수록 PC의 용량은 더욱 커지고 값은 보다 싸질 전망이다.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 그 다음은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DACOM)의 정보은행 가입회비 10만원과 한달에 정보사용료 5천원 정도를 잡으면 된다. 당연히 데이콤의 정보사용빈도에 따라 월 사용료가 달라지긴 하지만 말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간단한 컴퓨터의 조작방법만 알면 된다. 복잡한 매뉴얼을 익힐 필요도 없다. 키보드만 두들기면 된다. 컴퓨터란 것이 요즘은 와서는 사용자에게 자꾸만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 점은 안심해도 좋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이콤의 정보은행(Data Bank)이란 것은 뭘 하는 곳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대한 정보의 탱크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 정보은행에는 현재 경제뉴스를 비롯해서 증권시세정보, 투자정보, 일기예보, 각종 스포츠 안내정보 등이 이른바 '업투데이트'(Up-to-date) 하게 담겨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이 정보를 마음대로 자신의 PC를 통해 뽑아 볼 수가 있다.

이 자료뿐만 아니다. 전국규모의 각종 문화행사, 관광명소 안내, 교통시각표, 주택복권 당첨안내까지 제공해준다.

컴퓨터 만능시대에 이 정도의 정보자료는 어쩌면 평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출판계는 연간 약3만 8천여종의 도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간이 2만5천종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거칠게 말해서 하루에 대략 신간도서만 평균 55종 정도가 나오는 셈이다. 일주일이면 신간도서 385종이 서점에 선을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주간단위의 신간정보가 현재 데이콤의 정보은행에 수록되고 있다.

신간정보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야별로 책이름, 저·역자, 판형, 면수, 출판사, 발행년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내용을 다룬 책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간단한 요약문이 함께 실려진다.

이쯤 되면 책의 실물, 즉 표지장정이라든가

편집체제, 문장서술의 정도, 차례의 구성 등만 직접 볼 수 없을 뿐 대강의 책수준은 어렵잡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은행에 가입한 회원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가정의 안방 또는 사무실에 앉아서 아주 편한 자세로 주간단위의 신간정보를 키보드 하나로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서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재 시중의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분야별 베스트셀러 자료가 주간단위로 입력되고 있다.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어느 분야의 어떤 책들을 주로 많이 읽고 있는가를 안방에 앉아 문자 그대로 손바닥 들여다 보듯 캐치할 수가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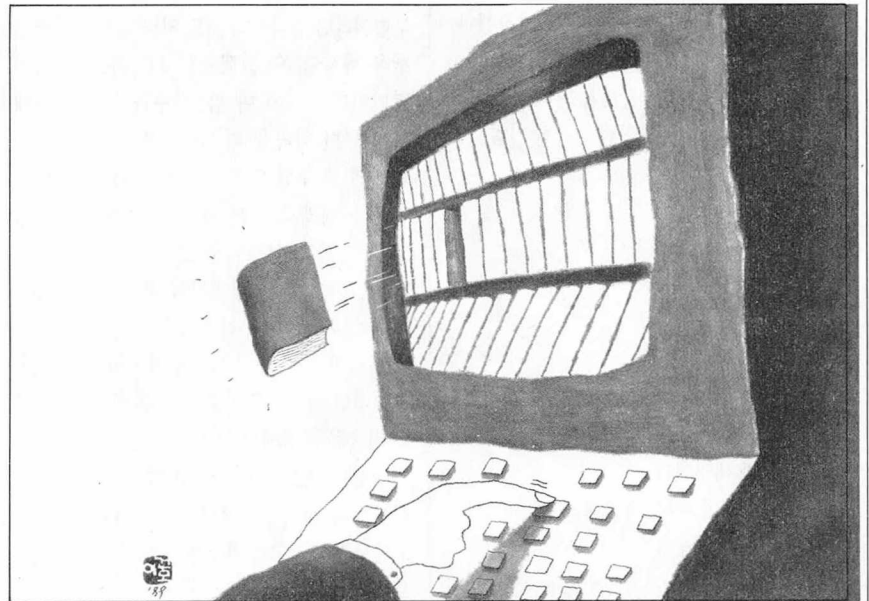
또 하나,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는 도서정보 자료가 있다. 즉, 현재 시중서점에 유통되고 있는 도서종류는 대략 11만종이라고 보는데, 이 판매중인 도서의 종합목록을 정보은행에 입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좀 과장되게 말해서 대형서점 하나가 통째로 가정의 안방에 옮겨지는 셈이라고나 할까.

이를 좀더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한국종합도서목록'의 입력 또한 못할 것 없다는 이론이다.

그렇다고 할 때, 도서관에서나 있음직한 문헌목록이 안방에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새로 나온 책, 많이 팔리는 책, 유통되고 있는 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책의 목록들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안방에서 키보드 하나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이른바 정보화시대가 바야흐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피부에 밀착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편, 키보드를 두드려서 정보만 캐치해보고 그것으로 끝나서야 별로 현실적 효용가치가 없다. 데이콤의 정보은행은, 자료검색의 1차원적 단계를 넘어서서 소위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2차원의 단계로 뛰어 올랐다는데 새로운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보은행은 현재 PC를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한 편의를 느끼도록 '네트워크'를 짜놓고 있다.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안방에 앉아서 물건을 살 수 있는'(홈 쇼핑) 연결망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가령, 이렇게 된다.

내가 PC를 가지고 정보은행의 회원이 되었다고 치자. 나는 날마다 집에 앉아서 키보드만 누르면 주간단위의 신간정보를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다. 물론, 매주 베스트셀러 자료도 뽑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어느날, 내가 가장 아끼고 위하는 친구 하나가 생일을 맞이하였다.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문득 묘안이 떠오른다. 친구가 좋아할만한 신간서적이 안성맞춤일 것 같다.

나는 바로 PC의 키보드를 누른다. 옮겨진, 마춤한 책이 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미공개작품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주제로 하여 친자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엮은 책이라는 해제가 더욱 마음에 든다. 값도 적당하다.

게다가 나의 친구는 생텍쥐베리라면 깜빡 죽는다. 그것을 선택한다. 주문 '오더'의 키를 누른다. PC의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문시의 참고사항이 한글로 적시되어 나온다.

“1회 주문시 5가지의 상품주문이 가능합니다.”

“환은신용카드(VISA), 국민신용카드 소지자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1회 주문시 수취인은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문도중에도 다음 명령의 사용시는 주문 처리가 중지됩니다.”

(X : 종료, T : 초기메뉴, R : 검색하면 복

귀)

그리고는 주문상품 「생과 사의 길목에서」라는 표제어와 함께 정가가 명시된다.

곧바로 이어서 주문상품이 맞는지, 주문수량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계속 주문하시겠느냐고 묻고 있다. 즉, 마음이 바뀌면 지금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과정이 세번이나 반복된다. 세번 안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지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확인키를 누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컴퓨터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가 건드리면서 약을 올리고 있으니까.

약간 신경질적으로 마지막 확인 키를 두드린다. 또다시, 결국은 최종확인인 셈인데 주문하는 상품명이 맞는가를 묻는다. 맞다고 대답한다. 그때 화면이 빨리 움직인다. 우송료에 대한 참고사항 안내문이 화면에 나타난다.

“도서우송은 등기로 배달됩니다.”

“우송은 주문일로부터 약3~4일 소요됩니다.”

“우송료=등기요금+보통우편요금”

“등기요금=교보문고 부담(470원 균일)”

“보통우편요금=이용자부담(100g당 60원)”

그리고 나서 우송료에 대한 도움말을 보고 싶으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키를 누르자, 무게에 따른 우송료가 도표로 나오고, 교보문고 부담 금액의 경우와 이용자부담 금액의 경우가

소설읽기의 다양함

「敘事理論」

權澤英

경희대 교수 · 영문학

**소설을 다양하게 읽는
훈련을 통해 소설읽기의
독자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이즈음 관심사이다.**



문득 눈을 들어 1989년의 몇날 안 남은 달력을 올려다본다. 90년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공부하기 위해 무언가를 쓴다. 원래부터 시험이나 숙제같은 게 없으면 공부를 잘 안하던 나는, 지금도 써야 하는 부담이 없으면 책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쓸거리가 필요하다. 시를 좋아하고 소설을 작사랑해온 나는 누가 숙제를 안 내줘서 그런지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것만 이러쿵저러쿵 애길 하게 되었다. 문학을 공부하던 시절에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힘겹게 남의 것을 읽고 가까스로 내것을 짜내었다. 그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인의 견해를 읽고 그것들과 부대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게 대학원 코스인 줄 알았네.”

3년 전이었던가, UC버클리대학 영문과 조교에게 나는 씩스럽게 말했다. 6년만에 다시 찾아간 다른 나라 캠퍼스여서 그랬던지 덤벼거리다가 세미나코스인 줄 알고 학부 4학년생 코스에 한동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라르, 주네트, 부스, 바르트, 바흐친, 브룩스 등 매주 세계의 주요 이론서를 한권씩 읽고 토론하길래 석사코스쯤 되는 줄 알았다. 그때 새삼스러웠던 게 구조주의 · 정신분석 · 마르크시즘 등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도 참으로 갖가지이고 어렵기도 하구나라는 느낌이었다. 비평이론과 소설을 따로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온 나는 두 영역이 합쳐지는 것을 본 것이다. 소위 서사이론(narratology)이다. 참신한 걸 배워보고자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붙잡고 주네트 이론을 읽었더니, 소설이란

재미있게 읽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알면 됐지 왜 이렇게 뜯어보고 조각내고 야단법석이나고 한 학생이 묻는다. 참으로 옳은 얘기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다. 그러면서도 나는 몰았다. 세상을 읽는 눈, 진리를 보는 시각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맨날 같은 방법으로만 소설을 읽을 셈이냐. 그렇게 쉬운 길만 찾는 사람은 다양성이란 단어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나도 이 20세기의 소설분석론들이란 게 낮이 설어 읽고 나서 몇달만 지나면 머리속에 윤곽만 남고 알맹이는 도망가버리곤 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쓰는 것이다. 차근차근 한권씩 헤집어서 알맹이고 윤곽이고 원고지에 담아, 붙잡아 놓자는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 월간 「동서문학」에 지면을 얻어 이 일을 시작했다. 20세기에 발표된 소설이론들을 더듬어가면 어느 지점에서 서사이론으로 바뀐다. 소설뿐 아니라 영화를 비롯한 모든 내러티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단히 지면 위에 발목이 잡히면 그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마땅히 그 다음에 오는 것, 독창적인 내 자신의 이론과 분석이다.

소설이 어떻게 씌었는가를 정확히 따져 읽는다는 것, 기존과 달리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정확히 따져가며 사는 것과 같다. 요즈음 다양성이란 단어가 흔히 쓰인다. 온갖 해석이 가능한 주관성으로 기꺼이 오인당하는데, 사실 이것만큼 객관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의 산물인 것도 없다. 타인의 견해와 부대끼지 않고 과학적인 분석의 산물이 아닌 다양성은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소설읽기의 엄격함도 여기에 그 몫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역시 도표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책이 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바로 그때 또다시 안내가 나온다. 문고본과 시집은 권당 대략 200~300g, 일반도서와 단행본류는 대개 500~600g, 전문서적(Hard Cover)은 권당 900~1,000g 쯤 무게가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충 송료가 추정된다. 서점이 부담하는 금액과 이용자인 내쪽에서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다.

아, 그리고 또 있다. 우송시 더 추가할 말이 있다. ‘생일선물용이니,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라는 도움말이 필요하면 키를 누르라고 한다. 물론이다. 이젠 생일선물용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내 친구의 주소와 이름, 우편번호를 입력시킨다.

컴퓨터는 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본 서점에서는 책을 뽑아서 정성껏 포장을 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내 친구에게 발송을 해줄 것이다. 책을 받아본 내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나중문제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컴퓨터의 키보드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비자카드를 쓰고 있는 나에게는 얼마후에 대금청구가 올 것이고, 나는 그것을 결제만 하면 된다.

안방에 앉아서 아주 짧은 시간에 나는 이 일을 해낸 것이다. 교통이 혼잡하기 이룰데 없는 시내 중심가를 통과해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여 책을 고르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지 않고도 말이다.

시간이 돈이라고 할 때, 나는 얼마를 벌었을까. 글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빗하다는 느낌이 든다.

요컨대, 안방에서 책을 골라 살 수 있고, 그것을 집에 앉아 받아 볼 수 있는 이 ‘홈쇼핑’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성인자가 컴퓨터의 온라인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온라인의 중심부분은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의 정보은행이다. 그 한쪽 끝에 이용자(독자)가 있고, 다른 쪽 끝에 서점(교보문고)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끝에는 환은신용카드주식회사(또는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가 연결되어 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서점에서 데이터를

작성하여 입력시킨다. 신간정보와 베스트셀러 자료이다. 그것은 곧바로 데이콤의 정보은행에 수록되고, 이용자는 그 자료를 수시로 꺼내 볼 수 있다.

이용자 쪽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입력시키면 데이콤의 정보은행을 통해 서점으로 전달된다. 서점에서는 매일 입력되는 자료를 검색한 다음, 출력프린터를 뽑아낸다. 이 출력프린터가 곧 영수증이 되고, 이를 근거로 환은신용카드주식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돈을 받는다. 환은신용카드주식회사에서는 당연히 카드소지자에게 대금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를 데이콤의 정보은행은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대구의 동아백화점, 역시 대구의 대구백화점과 온라인망을 연결하고 있다.

말하자면,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요즘의 신상품을 포함한 쇼핑리스트를 컴퓨터로 뽑아 볼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면 집에까지 배달을 받게 된다.

이거야 말로 신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요즘같은 교통지옥의 시대에는 더할나위 없이 편리하고 통쾌한 일이 아닌가.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컴퓨터의 화면이 글자로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물건의 형태와 빛깔을 볼 수가 없으니 답답한 점이다.

그러나 그것도 곧 해결될 전망이다. 컴퓨터 그래픽이 대중화 되지만 하면 상품 전체가 컬러화면으로 컴퓨터에 입력된다고 한다. 즉, 그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 그림을 보고 안방에서 물건을 고를 수가 있게 된다. 이쯤 되면 뭐 굳이 고생고생해가며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컴퓨터로, 보다 확실하게 앉아서 살 수가 있다.

책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표지와 제본 상태를 컴퓨터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다면 더더욱 책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불을 보는 듯 환한 일이다.

어쨌거나 우리 앞에 전개된 안방 쇼핑시대, 그것이 과연 어떤 생활패턴을 몰고 올는지, 또 그 생활패턴이 우리들의 의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한 일이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더욱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이 90년대에 말이다.